

《월든》

우리들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는 '순수' 를 찾으라

글_은종복 풀무질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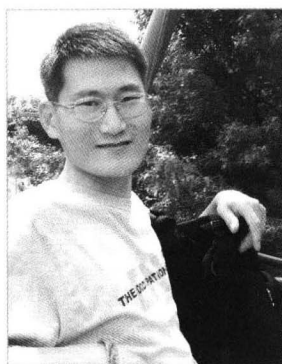
사람은 어떤 때 행복할까.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행복한 삶을 찾으려 할 것이다. 《월든》을 쓴 소로우는 문명생활보다는 자연 속에서 사는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했다. 정말 그럴까. 지금은 사람들이 좀더 편하게 살겠다는 생각에 여러 가지 기계를 만들고 자연을 사람들이 살기 좋게 바꾸려 한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졌을까. 부자 나라에 사는, 돈에 눈먼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든 물건을 억지로 팔려고 힘없고 가난한 나라에 마구 쳐들어가 수많은 여자와 아이들을 죽인다. 그들은 그런 일을 하면서 민주, 인권, 자유, 평화를 찾아 준다고 말한다. 때로는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한다. 정말 그럴까.

이런 시대에 소로우는 한 생각은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준다. 스스로 먹거리를 만들며 가난하게 사는 삶. 목숨을 이어가는 데 꼭 있어야 할 것만을 자연에서 얻고 나머지는 다시 자연에 돌려주는 삶. 조금 불편하고 빠르게 움직이지 못해도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는 삶. 기차를 타고 빨리 갈 수도 있지만 차비를 벌거나 기차에 내려 머물 곳에 널 방값을 벌 걱정 없이 자연을 벗 삼아 천천히 걸어가는 삶. 소로우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런 삶을 살라고 조용히 말한다. 사람뿐 아니라 숲을 죽이고 바다를 죽이고 온갖 농약과 화학 비료로 땅을 죽이는 세상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자연이다. 자연만이 스스로 아픈 것을 낫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자연은 그대로 놔두면 온갖 아픔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목숨불이들을 포근히 감싸 안고 살릴 수 있다. 지금처럼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빠른 속도로 자연을 더럽힌다면 자연이 스스로 힘으로 다시 튼튼해지기는 힘들 것이다. 벌써 자연은 돌이킬 수 없이 많이 더럽혀져서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흐름을 잃고 있다. 지구 곳곳은 이상 기후로 살아있는 것들이 수없이 죽어간다. 사람들의 끝없는 욕망과 개발, 전쟁으로 자연이 아파하고 뜨거워지고 있다. 자연이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다.

소로우는 사람들에게 느리게 살라고 한다. 다른 나라로 멀리 나들이를 가느니 스스로 '마음속 나들이' 를 가라고 말한다. 마음속 나들이를 바로 지금, 자기가 머문 바로 그 자리에서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하라고 한다. 그곳에는 자연을 더럽히는 일도 없고 서로 싸우는 일도 없다. 사람과 자연, 사람과 사람이 서로 어울려서 살아가는 만남만이 있다.

어느 날 소로우는 풀숲에 기어가는 작은 벌레를 본다. 벌레는 소로우는 손가락 하나로 죽일 수도 있는데 아주 거만하게 꿈지락거리며 모르는 척한다. 그때 그는 자기 머리 위에서 한 마리 사람 벌레인 자신을 내려다보며 은총을 주는 커다란 절대자를 느낀다.

소로우는 그가 살고 있는 곳 가까이 있던 월든 호수가 햇빛에 비취 은빛으로 반짝거리는 것을 보며 호수를 한 마디 커다란 물고기로 느낀다. 반짝거리는 호수 표면을 물고기 비늘처럼 보았다. 큰 깨달음이다. 사람이나 월든 호수나 우주라는 큰 자연에서 보면 아주 작은 영혼일 뿐이다. 하지만 그런 작은 영혼들이 모여 서로 어울려 살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 우리는 죽으면 자



● 이 글을 쓴 은종복은 현재 서울 명륜동에서 인문사회과학서점인 풀무질을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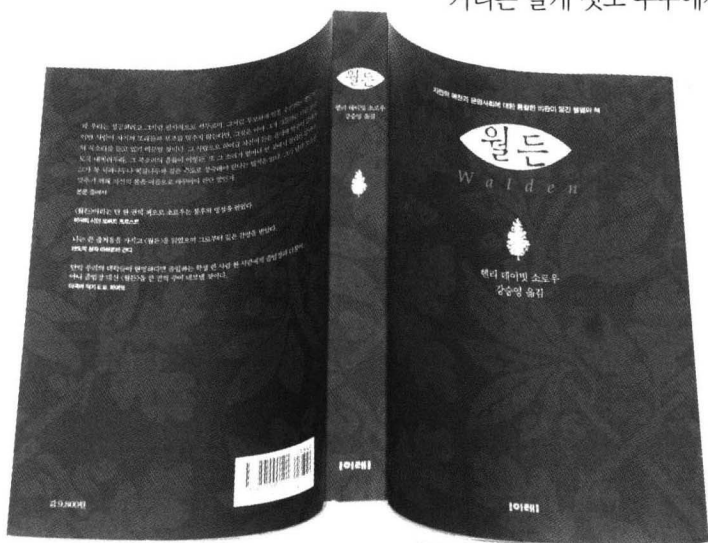
기 몸 하나 들어갈 나무 상자에 갇힌다. 그런데 사람들은 끝없이 넓은 땅을 가지려 하고 좋은 옷을 입으려 하고 지나치게 육식을 즐겨 스스로 마음을 더럽힌다.

소로우는 모든 사람이 숲으로 들어가 살라고 하지는 않는다. 스스로 살고 있는 곳에서 마음속에 울려 나오는 목소리를 찾아 살라고 한다. 소로우는 사람들 마음속에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을 보는 눈이 사라지는 것을 안타까워한다. 오로지 물질이 주는 편안함만을 쫓는 마음이 정말로 찾아야 할 삶이 주는 높은 뜻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슬퍼한다.

《월든》은 지금으로부터 150여 년 앞서 쓰여 진 글이다. 그때는 크게 빛을 보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꼭 읽어야 할 책이 되었다. 책에서는 지금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들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는 ‘순수’를 찾으라고 한다. 순수가 지닌 마음은 스스로 가난한 삶을 살지만 끝없이 넉넉한 마음이다. 가난하게 살면서 나타나는 맑은 마음이요, 내가 살고 있는 바로 이곳에서 진실을 찾으려는 목소리다.

그것은 사람이 자연 속에 살며 신이 주는 목소리를 온 몸 온 마음으로 느끼는 삶이다. 그 삶은 온갖 살아 있는 목숨붙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졌다. 그때 한낱 작은 모기가 내는 웅웅거리는 날개 짓도 우주에서 들려주는 커다란 소리로 들린다. 그것은 어떤 이름 난 작곡가가 만든 교향곡보다 크고 뜻 깊은 자연이 주는 숨소리다.

소로우는 마흔네 살에 눈을 감았지만 자연이 주는 따뜻한 마음을 느끼며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달았다. 그는 자연 속에서 신이 주는 목소리를 언제나 듣고 살았다. 그가 지은 작은 오두막에는 해가 뜨면 그 숲에 사는 온갖 목숨붙이들이 모인다. 다람쥐, 썩독새, 어치, 들꿩, 말벌, 산토끼들이 와서 논다. 그가 살던 작은 집은 월든 숲에 사는 동물들 쉼터요, 놀이터다. 그들이 오두막 가까이를 왔다 갔다 하며 깨우는 아침은 어떤 뛰어난 음악가도 만들지 못하는 힘차면서도 겸손한 자연이 주는 숨소리요, 신이 만든 즐거운 노래다.



《월든》

헨리 데이빗 소로우 지음

| 강승영 옮김 | 이레 | 485쪽 | 값 9,800원

마음속에 남아 있는 마지막 순수를 찾아 “사람보다도, 돈보다도, 이름을 높이기보다도 내게 진실을 달라”고 조용히 외쳤던 소로우

우 말에 귀를 기울이자. 이것이 사람이 살고 세상이 살고 목숨이 붙어 있는 모든 것들이 살 수 있는 길이다. 살아서 조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아름다운 길, 영원으로 가는 길이다. 자연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면서 배우는 살아 있는 스승이자, 살아 있는 모든 목숨붙이들이 끝없이 함께 어울려야 할 벗이다. **푸른**